국립공원 가야산 생태탐방로(가천면 신계리~칠불봉) 개방 건의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4월 일
제 출 자 : 이수경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○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로 미개방 코스인 신계리~칠불봉 코스의 조기 개방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 오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이 자랑하는 성주참외와 무흘구곡, 성주호, 세종대왕자태실 등 수 많은 유·무형의 자산을 전국에 알려 성주의 이미지 제고하고자 함이며,

○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런 군민의 여망을 담아 조기개방 할 것을 건의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2001년 9월 29일 국립공원 가야산 탐방로로 지정된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~칠불봉 구간(L=3.1km)을 조기 개방 요구

3. 건의서 내용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건의서 제출처 : 성주군, 경상북도, 문화체육관광부, 환경부, 국립공원관리공단

국립공원 가야산 생태탐방로(가천면 신계리~칠불봉) 개방 건의(안)

가야산은 소백산맥의 가장 뛰어난 명산이며, 조선8경 한국12대 명산 중의 하나이다. 특히, 성산가야의 정신이 태생한 민족의 영산으로 수려한 경관과 가야산 전체면적의 61%를 성주군이 차지하고 있으며, 조선후기 이중환의 택리지에 석화성 즉, 돌불꽃으로 불일만큼 기암괴석 대부분이 성주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큰 산입니다.

가야산 국립공원은 1972년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성주인의 자부심과 자연유산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 성주인의 정체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.

그러나 반세기동안의 원형보전과 개발제한의 정적개념에서 이제 탈피하고자 성주군은 가야산이 머물러 있는 자연의 산에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명이 담긴 생태관광의 산이 되고자 현 가야산 등산로 5곳(합천 3곳, 성주2곳)중에서 자연의 보전 상태가 양호한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(들리미)~칠불봉까지 3.2㎞미개방 구간을 개방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'가야산 생태탐방로'로 조성하고자 합니다.

특히 이 구간 개방으로 가야산 산성복원과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조성과 어울려 명실공히 성주의 가야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성주의 서부지역으로 주 생활경제원이 산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교적 낙후된 산촌형 농업지역으로서 우리군은 자연의 보전과 활용으로 새로운 농촌 성장동력을 찾고자 성주호 주변관광단지 조성 등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구간의 개방으로 질 좋은 내방객의 방문환경을 조성하고 지나가는 가야산에서 머물고 싶은 국립공원 가야산을 만들고자 합니다.

최근 산사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레져산업과 어울려 단순한 등산개념에서 걷고 전설을 들으며 문화를 만끽하는 소프트형 트레킹이 유행하고 있습니다. 그 예로서 2010년 6월 만물상코스가 개방 후 전년대비 6개월 동일기간 내방객이 57,000명에서 196,000명으로 증가됨은 그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는 증거입니다.

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도로를 넓히고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산과 건강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없는 생태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우리 성주군의회는

“자연으로 돌아가라”는 인간본성을 구현하고 별고을 성주의 아름다운 전설을 통한 의미있는 여행장소를 제공하며 이곳 지역민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탐방로(가천면 신계리～칠불봉)를 5만의 성주군민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모아 조기 개방을 건의 드립니다.

2011. 4. .

성주군의회 의원 일동